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3			제 () 선택
----	--	------	--	--	--	---	--	--	----------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께
 오늘은 지극한 덕(德)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곳에서는 다 같이 무지(無知)하여 본래의 마음을 떠나지 않으며, 다 같이 욕심이 없으므로 소박합니다. 종래의 어짊[仁]과 의로움[義]은 성인(聖人)이 도(道)와 덕을 해쳐서 만든 것이니, 이는 나무의 순박함을 해쳐 술잔을 만든 것과 같습니다. ... (후략)

- ① 성인의 예법에 따라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 ② 만물에 대한 분별적 관념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를 따른다.
- ③ 천명(天命)에 따라 몸과 마음을 삼가는 신독(慎獨)에 힘쓴다.
- ④ 잃어버린 본래의 마음을 되찾고[求放心] 의로운 일을 쌓는다.
- ⑤ 탐욕을 고통의 근원으로 여기고 열반에 이르는 수행에 힘쓴다.

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통치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피치자에게 정의로운 것으로 선언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범법자나 불의한 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
 을: 정의는 각자가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국가의 세 계층인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것이 정의이다.

- ① 갑: 정의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이상 세계에서 찾아야 한다.
- ② 갑: 법을 준수하는 것은 피치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온다.
- ③ 을: 정의로운 국가에서 철학과 정치권력은 하나로 결합된다.
- ④ 을: 계층 간의 간섭은 배제해야 하지만 역할 교환은 해야 한다.
- ⑤ 갑, 을: 이성보다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정의를 파악해야 한다.

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어느 누구도 나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을 때 참된 자유가 실현된다. 참된 자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을 때 실현되며, 불간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자유의 영역도 넓어진다.
 을: 어느 누구도 나를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을 때 참된 자유가 실현된다. 참된 자유는 고립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행위자들의 존재를 전제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 ① 갑: 참된 자유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이다.
- ② 갑: 개인은 사적 영역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자유를 누린다.
- ③ 을: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사회와 분리된 삶을 통해 실현된다.
- ④ 을: 어떤 간섭도 없어야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완전히 실현된다.
- ⑤ 갑, 을: 법에 의한 통치는 참된 자유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4.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음 수양은 욕구를 줄이는 것 [寡欲]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선한 본성을 따르면 대인(大人)이 되고, 육체적 감각을 따르면 소인(小人)이 됩니다.

마음 수양은 예(禮)에 따르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 없습니다. 예는 성인(聖人)이 본성을 변화시키고 인위를 일으켜 만든 것이며, 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 ① 갑은 소인과 달리 대인은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본다.
- ② 갑은 모든 육체적 욕구를 제거해야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하늘을 도덕의 모범으로 삼아 예를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백성들의 욕구는 예를 기준으로 조절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도덕적 인식 능력은 마음 수양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5. (가)의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국가에 의한 구속을 스스로 부과한다. 이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으로 인한 전쟁 상태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다.
 을: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불확실하게 향유하던 자연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자연법의 집행권을 사회에 양도한다.
 병: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게 평등하지만 사유 재산의 발생으로 인해 불평등이 생기자 자신의 몸과 모든 힘을 일반 의지에 양도한다.

(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범례>

- : 출발 조건
-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

        graph TD
            A{A} -- "아니오" --> B{B}
            A -- "예" --> Gapsu[갑의 입장]
            B -- "아니오" --> C{C}
            B -- "예" --> Eul[을의 입장]
            C -- "예" --> Eul
            C -- "아니오" --> D{D}
            D -- "예" --> Byung[병의 입장]
            
```

- ① A: 국가는 자연 상태에서의 불의를 극복하기 위한 합의체인가?
- ② B: 국가는 개인의 권리 양도 없이도 성립 가능한 공동체인가?
- ③ B: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의 산물인가?
- ④ C: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갖는가?
- ⑤ D: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대행하는가?

6.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생사(生死)의 흐름을 끊을 수 있다. 비구들이여, 열심히 닦아 익히며 바른 법(法)과 계율로 정진하라.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은 자는 번뇌가 불꽃처럼 일어나는 괴로움이라는 과보(果報)를 받지 않는다.

- ① 삼독(三毒)을 제거하면 해탈에 이를 수 있다.
- ② 무명(無明)을 성취하여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③ 선업(善業)을 쌓아 나가면 삶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 ④ 연기(緣起)를 깨달아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중도(中道)를 닦아 오온(五蘊)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 한다.

7.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자제력 없는 사람은 악을 알고도 정념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자제력 있는 사람은 악을 알면 이성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성인 사람의 고유한 기능이며 실천적 지혜는 영혼의 이성적 부분과 관련된 덕이다.
 을: 정념에 속박된 사람은 선을 알고도 악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성에 인도되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을 행한다. 후자가 품는 최고의 욕망은 자기와 신과 사물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 보 기 >

- ㄱ. 갑: 인간의 모든 악행은 자제력 없음에서 비롯된다.
- ㄴ. 갑: 실천적 지혜가 있어야 절제의 덕을 갖출 수 있다.
- ㄷ. 을: 정념 발생의 질서를 이해하면 정념을 극복할 수 있다.
- ㄹ. 갑, 을: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천하에 도(道)가 있으면 예악(禮樂)과 정벌(征伐)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악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온다. 군자(君子)는 도를 구할 뿐 밥을 구하지 않으며, 도를 걱정할 뿐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을: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전쟁이 없으므로 말이 농사를 짓는데 쓰이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전쟁이 그치지 않아 말이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는다. 도는 무위(無爲)하며 성인(聖人)은 도 하나만을 지녀 천하의 본보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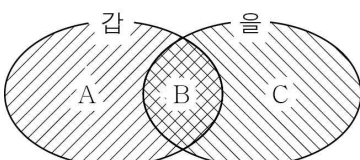
- ① 갑: 도는 각자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행할[正名] 때 실현된다.
- ② 갑: 도는 수행자가 자아조차 잊어버려야[坐忘] 체득될 수 있다.
- ③ 을: 도는 본성[性]을 교정하기 위해 성인이 제정한 규범이다.
- ④ 을: 도는 인(仁)과 예(禮)가 사라졌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 ⑤ 갑, 을: 도는 만물의 시비선악(是非善惡)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9.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민주주의는 시민이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의미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표를 얻는 데 성공한 정치 엘리트가 모든 정치적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받는 제도적 장치일 뿐이다.
 을: 민주주의에서는 담론 규칙을 토대로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시민 사회의 정치적 의지가 형성되어야 한다. 정책 결정의 과정은 공적 심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시민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

- ① 갑: 시민은 정치 엘리트를 승인하거나 부인할 기회가 없다.
- ② 갑: 정치 엘리트는 시민보다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쉽다.
- ③ 을: 공적 심의가 이루어지는 공론장은 사회의 통합에 기여한다.
- ④ 을: 정책 결정의 과정은 담론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정당하다.
- ⑤ 갑, 을: 민주주의는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로 완성된다.

10.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도덕성은 이성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덕과 악덕이 유발하는 인상이나 소감을 통해서만 우리는 덕과 악덕의 차이를 확정할 수 있다. 을: 도덕성은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애정 때문이 아니라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달려 있다.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 범례 >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div>

< 보 기 >

- ㄱ. A: 도덕적 선악에 대한 구별은 쾌락과 고통에 의존한다.
- ㄴ. B: 도덕적 선악에 대한 구별은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
- ㄷ. C: 어떤 감정도 도덕적 행위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
- ㄹ. C: 도덕적 의무의 이행과 자율적 행위는 양립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중세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최고선은 영원한 생명이며 최고악은 영원한 죽음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선의지에 따라 살아야 하며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신국(神國)의 시민은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삼으며 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

을: 선(善)은 행해져야 하고 악(惡)은 피해져야 한다는 것은 자연법의 제일 원리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인 이성에 따라 선을 지향하는 성향, 즉 신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고 사회에서 살려는 자연적 성향을 갖는다.

- ① 갑: 선의지를 발휘하면 신의 은총 없이도 원죄에서 벗어난다.
- ② 갑: 악은 인간의 의지로부터 비롯되며 선에 대립하는 실체이다.
- ③ 을: 자연법은 인간의 실천이성이 자율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 ④ 을: 자연적 성향에 대한 성찰로 신이 원하는 바를 알 수 있다.
- ⑤ 갑, 을: 신의 계시 없이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논증할 수 없다.

12.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공화정에서 전쟁을 개시하려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은 전쟁의 재앙을 각오해야 하므로 전쟁을 꺼리게 된다. 공화정은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체제이다.
- 개인들이 사회 계약에 기초하여 국가를 세우듯이,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방 체제에 기초하여 영원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 보 기 >

ㄱ.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 되어야 한다.
 ㄴ. 전쟁 억제력을 지닌 강력한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ㄷ. 국제법은 개별 주권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ㄹ. 평화의 실현을 이성이 명령하는 도덕적 의무로 보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가)의 현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신 앞에 홀로 서는 것, 다시 말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큰 노력과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이는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일이다.</p> <p>을: 인간의 본성을 구상하는 신이 없기에 인간은 스스로가 구상하는 무엇이며,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이다.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 후에 정의된다.</p>
(나)	<p>_____ ㉠ _____. 그러면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다.</p>

- ① 갑: 지성을 발휘하여 주관적 진리를 극복하라
- ② 갑: 윤리적 삶을 통해 절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 ③ 을: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절대자에게 의지하라
- ④ 을: 인간의 보편적 본성을 발견하고 온전히 실현하라
- ⑤ 갑, 을: 주체적 결단을 통해 참된 자기 자신이 되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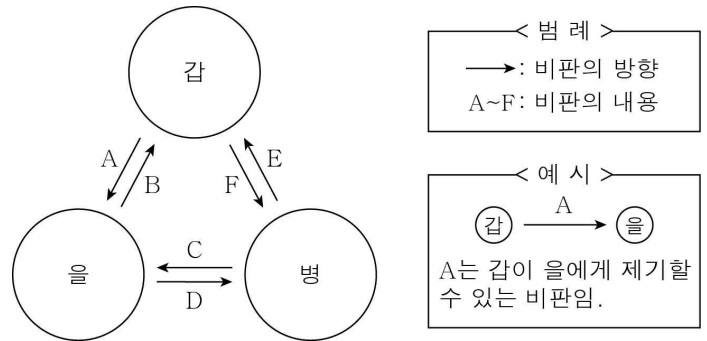
[14~15] 갑은 중국 사상가, 을과 병은 한국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하늘이 명(命)한 본성[性]이자 마음의 본체인 양지(良知)는 자연히 대상을 환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이다. 맹자가 말한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지(知)이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 이른바 양지이다.

을: 하늘이 명한 본성은 이(理)와 기(氣)가 부여된 것 중에서 이의 본연의 자리를 가리킨다. 그 가리키는 바가 이에 있고 기에 있지 않기에 순선하여 악이 없다. 사단은 이의 발현이므로 선하지 않음이 없다.

병: 하늘이 명한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한다. 본성이 선을 좋아하기에 측은(惻隱)·사양(辭讓)의 마음이, 악을 싫어하기에 수오(羞惡)·시비(是非)의 마음이 있다. 네 가지 마음을 확충하면 사덕을 이룰 수 있다.

14.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인간은 선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B, D: 인간은 기질지성(氣質之性)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한다.
- ③ C, E: 인간의 시비지심은 본성을 확충해야 획득됨을 간과한다.
- ④ D, F: 하늘이 인간에게 명한 본성이 곧 천리(天理)임을 간과한다.
- ⑤ E: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하늘이 양지를 부여했음을 간과한다.

15.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의 입장에서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측은해하는 마음은 애(哀)에 속하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오(惡)에 속한다. 공경하는 마음은 구(懼)에 속하고, 옳음과 그름을 구별하는 마음은 희(喜)·노(怒)가 마땅한가 마땅하지 않은가를 아는 감정에 속한다. 칠정 이외에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 ① 악(惡)은 기질의 탁함과 치우침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과한다.
- ② 욕(欲)은 기에 근원을 두고서 드러나는 정(情)임을 간과한다.
- ③ 발(發)은 기만 가능하며 이는 발하는 근거일 뿐임을 간과한다.
- ④ 인(仁)은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의 실마리[端]임을 간과한다.
- ⑤ 성(誠)은 경(敬)에 힘써야 나아갈 수 있는 경지임을 간과한다.

16.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해도 좋은 유일한 경우는 심신에 고통을 주지 않는 경우이다. 충족하지 않아도 고통을 낳지 않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은 헛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을: 쾌락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무엇을 받아들이거나 피하려는 의지는 우리의 능력 안에 있다. 자연의 필연성을 받아들이고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성애 따라 살아야 한다.

- ① 갑: 자연적이지 않은 욕구도 제한 없이 충족해야 한다.
- ② 갑: 사회 전체의 쾌락을 위해 공적인 삶에 헌신해야 한다.
- ③ 을: 이성을 온전하게 발휘하여 모든 정념을 제거해야 한다.
- ④ 을: 쾌락 그 자체는 선이지만 쾌락에 탐닉하지 않아야 한다.
- ⑤ 갑, 을: 평온한 마음을 갖기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17. 다음을 주장한 중국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마음은 본성[性]과 감정[情]을 주재한다.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뜻을 정성스럽게 해야 하고, 뜻을 정성스럽게 하려면 먼저 앎을 극진히 해야 하며, 앎을 극진히 하려면 먼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理]를 궁구해야 한다.

< 보 기 >
 ㄱ. 격물(格物)을 통해 천리(天理)를 밝힐 수 있다.
 ㄴ. 마음은 사덕(四德)과 사단(四端) 모두를 포괄한다.
 ㄷ. 마음의 이치와 사물의 이치는 그 근원이 서로 다르다.
 ㄹ. 앎이 극진해지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겨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행복은 유일하게 바람직한 목적이다. 다른 모든 것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만 바람직하다. 행복이란 쾌락은, 그리고 고통의 부재를 뜻한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양과 질 모두의 측면에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도덕 원리의 기반이다.	✓	✓		✓	
쾌락의 질이 높아지면 쾌락의 양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		✓		✓
행위의 동기는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	✓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키더라도 자기희생은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9. 한국 불교 사상이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부처의 모든 가르침은 일심(一心)과 이문(二門)을 벗어나지 않는다. 진여문(眞如門)에 의지해 지행(止行)을 닦고 생멸문(生滅門)에 의지해 관행(觀行)을 닦아야 한다. 지와 관의 두 수행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을: 선정(禪定)은 본체[體]이고 지혜(智慧)는 작용[用]이다. 선정이 곧 지혜이므로 고요하면서도 밝은 앎이 있고, 지혜가 곧 선정이므로 밝게 알면서도 항상 고요하다. 선정과 지혜의 두 수행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보 기 >
 ㄱ. 갑: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은 본래 하나이다.
 ㄴ. 을: 경전 공부 없이는 불성(佛性)을 자각할 수 없다.
 ㄷ. 을: 습기(習氣)가 있으면 선정과 지혜를 닦을 수 없다.
 ㄹ. 갑, 을: 각 종파가 추구하는 궁극적 진리는 다르지 않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사회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 생산물이 최대 가치를 갖도록 노력할 뿐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개인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게 된다.
 을: 개인의 이익 추구하고 사회의 이익 증진이 항상 조화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투자의 사회화를 추구해야 한다.
 병: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 경쟁이 계획 경제보다 우월하다. 자유 경쟁은 효율적이지만 계획 경제는 모든 과업에 대해 억지로 동의하도록 강요하여 노예의 길로 이끌 뿐이다.

- ① 갑: 정부는 국부 증대를 위해 계획 경제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 ② 을: 시장 실패는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로써 해결되어야 한다.
- ③ 병: 정부는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 ④ 갑, 병: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 ⑤ 을, 병: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완전 고용을 실현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